

KT노보보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2면 -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안 해설

- 직권중재 · 손배가입유예제 등 입법과제 성취하라!!
- 비정규직 노동권 법으로 보장하라!!
-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철회하라!!
- 한일FTA협상 잠정 중단하라!!

KT노동조합 / 발행인 지석익 / 편집인 강세훈 / ☎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자동 206 / 전화 031-727-4820-4854 / 전송 02-750-5404 / 홈페이지 www.ktuo.or.kr / 편집디자인 김원 (02-2272-7114)

압도적인 찬성으로 차별법에 저항하자!!

지난 9월 21일, 민주노총 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올 하반기에 선조합원 총투표와 총파업투표를 결정했다. 이어 10월 7-8일 진행된 단위노조 대표자수련회에서는 대다수결정된 총투표와 총파업을 위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의를 모아냈다. KT노동조합도

민주노총과 IT연합의 지원에 따라 총파업 투쟁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1월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온라인기사 2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하반기 정세가 극한으로 치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회의를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제출하고 과건노동자를 선면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근로사과건법은 26개 업종

에 한하여 과건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만대로 과건법이 개악될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전연기별 물이 될 것이다.

또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한일무역자유협정 IFTA에 체결된다면 일본의 저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에 의해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정부와 재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 비정규직의 처우는 정규직의 처우로 부러움이 있어 날아올 것이며 FTA로 인해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경우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통신산업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만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직권중재와 손배가입유예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처지와 노동허가제 도입 ▲원저임금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 권리입법은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 거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원에 맞춰 한국의 150만 노동자 성취해야 할 과제만 것이다.

위원장 메시지

실천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합간부교육과 추구대회를 통해 다시한번 조합간부들의 신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간부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조합간부들은 교육과 분임토의 등을 통해 자신의 고난 환동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발로 뛰는 간부가 될 것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선제 교육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간부는 간부로서 자격이 없으며 조합원들의 신명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2004년 하반기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도 모자라 이제 과건법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밀히 한일 FTA를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될수록 선반직인 노동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그 영향은 정규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유연화와 고용경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IMF이후 증가하는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감축은 이렇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재계는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꾀변까지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노동조합을 비롯한 통신과 철도 보건 등은 필수공공서비스업이라는 이름으로 직권중재에 묶여 노동3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시정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이 사슬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경일이 선 거라고 그 때 당시 추성하면 모두가 불만이 되는 악순환을 우리 스스로가 끊어야 합니다. 언제나 가진 자들은 그 경일을 우리 노동자들에 떠넘기고는 했습니다. 자신들은 부정부패와 함께, 투기로 재산을 불린 면서 말합니다. 이제 노동자가 나서 경일을 끊어야 합니다.

11월 2일이 바로 경일을 끊는 날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가결로 민주노총과 IT연합 그리고 KT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시고, 8대 집행부는 다시한번 실기일련케 남은 임기동안 '정당한 노동조합'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조합원 총회 지침

민주노총 총연맹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처지외 차별철폐, 권리보장 입법성취 △직권중재, 손배가입유예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국가보안법 안전제지 △한일FTA, 한미BIT협상중단 △이라크 파병연장처지 등을 목적으로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산하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총회를 공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KT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임시 조합원총회 시점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시무장 및 분회장에서는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11월 2일까지 투·기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순이나 일부세력의 개인지는 강력히 처벌예정이니 즉시 지방본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 조합원총회
11월 2일 : 2004. 11. 11월 - 11. 21(화) 2일간
의 투표시간 : 09:00 - 18:00
외 투표장소 : 각 지부, 분회내 투표가능한 장소

- ☐ 투·기표 지침
- 가. 조합원 총회 목적
 -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처지외 차별철폐
 - 권리보장 입법성취
 - 직권중재, 손배가입유예제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국가보안법 안전제지

- 한일FTA, 한미BIT협상중단
 - 이라크 파병연장처지
- 나. 조합원 총회 방법
- 총연맹 "2004년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위한 결의
 - 조합원 총회를 통한 노동조합 자주성 확립 및 결의
 - 압도적인 찬성 유도
- 다. 조합원총회 세부사항
- 조합원 총회 목적사항 일괄 찬·반 투표
 - 투·기표는 각 지부(분회)별로 시행한다.
 - 투표일은 2004. 11. 11(화) - 11. 21(화) 2일간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09:00 - 18:00까지 시행한다.
 - 한투·기표는 각 지부(분회)에서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행한다.
 - 투표
 - 투표용지는 기 재적 배포된 총연맹 투표용지로 한다.
 -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고 투표용지를 배포하며, 투표기구는 지부(분회)실정에 맞게 사용한다.
 - 기표
 - 기표일시는 2004년 11월 2일(화) 18:00에 한다.
 - 기표 종료후 지부별 조합원총회 찬·반투표 결과 작성
 - 기표결과 보고는 각 지부(분회)에서 지방본부로 보고
 - 지방본부는 지부별 조합원총회 찬·반투표결과를 중앙본부로 보고

11월 2일은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 ▷비정규 노동법 개악파기, 비정규 보호법 제정
- ▷한일 FTA, 한일 BIT체결 저지
- ▷국가 보안법 폐지
- ▷노동기본권 및 노동관련 개혁 입법 쟁취
-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폐기



전국상집간부 60여명 2박3일 지리산 종주

성치않은 몸을 서로 기대며 힘들수록 동지애는 더욱 깊어져



불타는 동지애는 악천우를 이겨냈다. 전국 60여명의 상집간부들은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우 속에서도 9월 16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지리산종주를 무사히 마쳤다. 노고단 아래 정상에서 친왕봉을 거쳐 종산리까지 34km에 이르는 종주코스는 조항간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몇몇 조항간부들은 은근히 비로 인해 종주를 취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리산 종주를 마친 조항간부들의 얼굴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피곤함도 잊었으며 2박 3일을 함께한 동지들을 께안고 뜨거운 체온

을 느끼기도 했다. 지리산의 정상에서 산행을 마치고 종산리 폐포소 입구에서 가진 점심에서 '단지 말뿐인 동지애 보다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려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동지애'라며 '지리산 종주를 통해 동지애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발 당일에는 서로가 서로를 앞서가려는 경쟁심이 작용해 빠른 속도를 내며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면서 지리산의 새벽길을 내달렸다.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옷과 신발이 젖고 배낭까지 젖어들기 시작하

자 발걸음도 함께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지리산은 쉽게 몸을 열 수 없다는 뜻이 더욱더 명렬하게 비를 쏟아 붓기 시작했고 차츰 선두와 후미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연화천대포소에서 잠시 몸의 피로를 풀고 첫날 기차인 벽소령 대포소에 도착한 조항간부들은 15km가 넘는 감행코스로 인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마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다.

둘째날 새벽 6시 기침한 조항간부들은 다시 잠터쪽 대포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무릎관절과 다리근육에서 전해오는 통증은 한걸음을 떼어놓기 힘들게 했지만 앞서간 동지들이 미리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간 동지들이 힘을 북돋아주며 길을 재촉했다. 간간히 전망 좋은 자리가 나타날 때면 경계가 펼쳐진 지리산자락의 기상을 가슴에 새기곤 했다. 무사히 잠터쪽 대포소까지 도착한 조항간부들은 불계 며으르는 친왕봉의 일출을 기대하며 서둘러 취침했다.

마지막날, 잠대비에 가려 일출을 볼 수 없었지만 친왕봉을 가리키는 들배석을 만지며 노고단에서 친왕봉까지 지리산 종주를 모두 거쳐 왔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산코스에서도 험난하기로 유명한 종산리코스는 약아지르듯 가파른 하산 길로 조항간부들의 고통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조항간부들은 성취감 많은 무릎으로 인해 절뚝거리고 물에 젖은 배낭을 들을 이고 가는 듯 했지만 함께한 동지들이 배낭을 들어주는 동지애를 발휘하며 하산하였고 종산리 폐포소 입구에서는 먼저 도착한 조항간부들이 박수를 쳐주며 환영해 주었다.

끝까지 차오르는 숨과 질어질 듯 아아오는 근육통, 그리고 3일 내내 내리는 비는 조항간부들에게 포기를 강요했다. 그러나 42.195km를 내달린 마라톤 선수처럼 한발한발 자신과 싸우고 동지애를 키워가며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이로서 지리산 종주 전국상집 국가출연은 최악의 악천우 속에서 극적이게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리산 종주에 참여하신 모든 전국상집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견법 철폐 및 NSC매뉴얼 도입 규탄대회

IT연맹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노동 탄압의 수단"

민주노총은 9월 2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IT연맹을 비롯한 조항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견법 철폐 및 NSC 매뉴얼 도입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집었다"며 "이번 파견법 개악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하자"고 밝혔다.

조항한 IT연맹 정회장은 투쟁사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지침은 직권중재와 함께 국가기관산업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며 "정부가 국가위기관리지침 추진을 즉각 철폐하지 않는다면 130만 IT노동자가 선봉에서 강력한 분쇄투쟁을 벌일 것이다"고 경고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9월 8일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넘어 사이버 안전, 금융·정보통신 분야까지도 포괄하는 국가위기관리지침 및 유형별관리표준매뉴얼을 제정해 각 안보기관이 파업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도 직권중재로 인해 국가기관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으로 안보기관까지 총동원해 노동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5·6공시대에나 가능했던 과거이다.

한편,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대외협력·대북협력·군사협력 및 국내협력 사항을 가능한 국무회의에 앞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전국IT산업연맹의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대한 입장

초법적인 노동탄압 즉각 철회하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회 지재식, 이하 전국IT산업연맹은 정부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유형별관리표준매뉴얼을 제정하여 사권에 들어간다고 밝힌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130만 IT노동자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 발표내용의 골자는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세안 등 총 30여종의 국가위기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파업집도에 따라 '민심경보→주의경보→경계경보→실각경보' 등 4단계 조기경보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국가위기관의 규정에 있어 군사, 외교상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권중재에 의해 국가기관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조처는 아예 기관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권위주의 정부시절 국가의 공권력으로 노동운동 탄압을 행했던 전횡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할 것이다.

전국IT산업연맹은 이번 조처로 인해 노동자의 집단행동권을 가로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며, 결국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 자명하다.

전국IT산업연맹은 이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박탈하는 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감행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전국IT산업연맹은 이번 집기국회에서 기관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직권중재 규정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사태 추이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10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IT연맹, 노동자 경영참여의 새로운 모색 세미나 개최

'노동자 경영참여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회 지재식, 이하 IT연맹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회 관태원, 이하 사무금융연맹) 공동주최로 10월 20일 한국투자증권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을 주최한 IT연맹 지재식 위원장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실도 깊은 연구와 함께 열린 논의의 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 경영참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민주노총 차원에서 보다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인사에 거듭했다.

지리산 종주 산행기

지리산 종주 극기훈련을 대겨워서

서부지방본부 위원장 김병탁

첫번째 목적지는 노고단! 출발한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내 환호우의 속에 감춰져 있던 풍산봉과 신고 있던 종산봉은 이미 퍼붓는 폭우와 흘러내리는 진흙탕 물속에 질척거리고 있었다.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지리산이 폭우속에 잠긴 자태를 서서히 내 보이는 지리산의 풍경을 감상하기보단 이와 같은 상황속에 3일간의 피곤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속에 묵묵히 한걸음 한걸음 지리산의 골짜기로 걸음은 이어졌다. 힘들게 비속을 헤치고 연화천 대포소에 도착하자 먼저 도착한 동료들이 라면과 물과 배낭에서 도착한 동지들을 맞아주었다. 파스와 면소레담으로 응급처치 후에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첫날 안식처인 벽소령 대포소를 향해 또다시 감행군이 시작되었다. 또다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이전처럼 계속 샘물에 차있던 배낭들을 뒤돌아보며 발걸음을 내딛는다. 사진에서 보아온 불은우레등! 벽소령 드디어 도착! 험기진 배는 이미 우리 조, 남의 조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어진 취침. 그리고 밤새 대포소엔 명렬한

목적지의 목적지가 이뤄진다. [코고는 소리, 이빨가는 소리.] 우익는 배낭속에 두고 배낭 커버만 끈은채 둘째날 감행군은 시작되었다. 점심시간 조금이나 세식산장에 도착하여 라면과 찬밥으로 험기진 배를 채우고 열악한 환경에 다신 후 회복해줘 다시 출발하려는데 빗물이 또 뚝뚝이다. 얼마 후 체력이 저하된 동료들 뒤에서 밀고 앞에서 잡아주고 이른 곳이 추대봉. 조금 전까지 그렇게도 힘들게 쏟아 붓던 빗줄기가 추대봉에서는 얼마나 시원했던지, 두팔을 한껏 벌려 안아보았지만 내 몸을 벗어나 열어지는 빗줄기가 아쉬울 만큼 추대봉에서 내려보는 지리산은 정말 장관이었다. 마지막 안식처인 잠터쪽 산장에 도달해 저녁식사를 조별식으로 전점을 한번 치우고 두다리를 뻗었다. 이렇게 두번째 밤을 지나갔지만 새벽녘에 들려오는 큰 빗소리에 하나둘씩 잠을 깨었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아침식사를 라면, 밥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마지막 친

왕봉 고지를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 한발한발 전진했다. 어느덧 친왕봉 정상!! 정상 아래 흐드러지게 핀 구절초위로 여전히 비는 세차게 내리붓고 있었다. 저 멀리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잠시 조망해보니 후내 가 잠난코스도 멀리서 종산리로 하산길에 접어들었다. 친왕봉에서 벼랑위에서 쏟아지는 폭포수에 비에 젖은 몸을 다시 한번 맡겨본다. '아 이 맛이야!' 종주하며 하산길에 느껴보는 삼계탕을 뒤로한 채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었다. 약아지를 못한 험한 하산길 끝에 종산리에 도착한 우리는 심취감에 도취되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지친 몸도 잊은 채 슬라셔로서의 포안감에 포효를 외쳤다. 떠날 때의 설레임이 돌아갈 곳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을 뜨음, 지리산에 잠시 이별을 고했고 버스에 걸속히 지친 몸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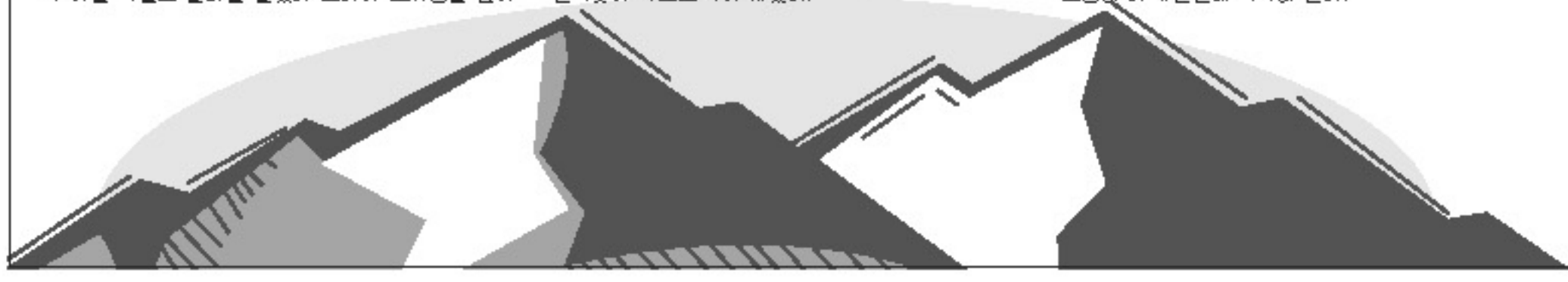
전국상집 수련회 지리산 종주를 마치고

강북지방본부 사무국장 유경규

잠대비가 퍼부는 가운데 김방으로 아찔하기를 한후 한동노조가를 힘차게 부르면서 출발식을 가졌다. 근사도로 같이 잘 꾸여진 풍산로를 따라 노고단에 도착하니 잠대비와 비바람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인연점결후 다음 목적지인 연화천대포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선도그늘과 함께 출발한지 1시간쯤 집의 무게로 인한 어깨통증이 어깨를 엄습해 왔다. 이번 종주는 나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보겠다는 마음과 손발같이 지나가 버린 1년9개월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혼자서 산행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 어렵고 힘들게 연화천대포소에 도착한후 거세게 불던 비바람은 잦아들고 햇빛이 우리를 반겨왔다. 간단한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점심 출발한지 1시간후 토끼봉을 오를때 왼쪽 오른쪽 잠대비에 뒀가 나가 시작하여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몇발자 걸다치고 또 다시 이를 아팠고 열마를 걸었다 드디어 토끼봉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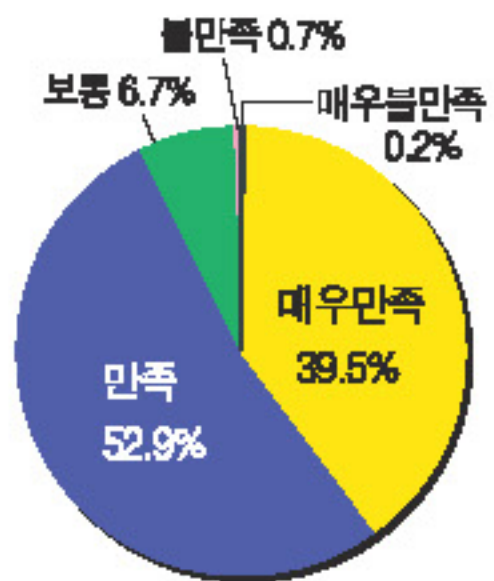
벽소령대포소에 도착하였다. 이번 지리산 종주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토끼봉을 넘어 올때인 것 같다. 벽소령대포소에서 저녁을 먹고 쓰러지듯 길은 단장에 빠져 들어 지리산에서의 첫날밤은 흘러갔다.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아침 일찍 기상하여 다시 출발한 세식산장. 길은 잠을 자서 그런지 어찌보다 몸이 가벼워 수월하게 오를수 있었다. 세식대포소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잠터쪽대포소를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잠터쪽 도착한 20분전부터 갑작스런 비바람을 동반한 빗줄기가 퍼부었다. 거센 비를 뚫고 잠터쪽산장에 도착한 후 서로를 힘들었던 여정에 대한 무용담으로 꽃을 피웠다. 마지막날인 친왕봉은 비바람으로 일출의 장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좋았다. '친왕봉아! 내가 왔다. 너를 정복하기 위해 비바람 맞아봐! 굽은 팔뚝을 흔들려. 너가 여기에 있기에 내가 왔다.' 비바람은 매섭게 들어치지만 그래도 정상에 올라 있다는 것이 가슴 뿌듯하였고 어렵고 힘든 그동안의 여정이 눈물속이 사르르 녹아 내렸다.

선도그늘보다 무려 4시간 늦게 최종도착지인 종산리 대포소에 도착했는데 먼저 도착한 동료들이 보낸준환영 박수와 열렬한 박걸리 한사발이 그동안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주었다. 잠시후 개최된 해단식에서 "우리는 해냈다"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격려해주는 광경이 다시한번 가슴 뭉클한 감정을 연출하였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집간부들과 2박3일동안 함께 한 시간이 인생에서 소중한 기억 될 것 같고, 조항간부로서 올곧은 자세와 조항연을 위한 고언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 것 같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이번 종주에서 느낀바대로 아무런 어려움 난관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창출하여 조항연에게 선사하는 조항간부가 되어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또한 나도 면훈날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리산 종주를 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해 줘야겠다. 그리고 아들 딸하고 다시한번 지리산을 종주할 것을 조항한 나 자신한테 약속해 본다.



2004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평가

92.4% 만족... 600여 조합간부 "초심으로 돌아가 발로 뛰는 간부 될것" 결의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04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에 대해 조합간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만족과 만족이 92.4%에 달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자들은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매우 높은 몰입도와 열정을 보였으며 교육 후 사기도 높아졌다.

8대 집행부들이 전 조합간부를 상대로 한 첫 집체교육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사신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진 데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사대토론회와 집단협약체결과정에 대한 협상교육은 중앙본부와 지방부가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동안 '오식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집회과제 및 하반기 사업 ▲단체협약 및 규약규정 제정 ▲대중에서의 전달기법 ▲산사업무처리 방법 및 대응 ▲KT의 임금체제 및 복지수준 등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인 실행교육을 요구하기도 했다.

본일토의는 늦은 시간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잠시간 토론하고 각자의 고민과 고충 등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조합활동을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답답한 조합간부가 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편 조합간부들은 향후 희망하는 교육으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등에 대한 교육과 대중에서의 전달 기법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교육 기회의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중앙상집 비협을 통해 새로운 임집속에서도 역량강화 교육을 심층리에 바쳤다고 평가하고, 차기교육은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현장의 조합간부들의 열의를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대회의 시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집합, 순회교육 등으로 다가가길 것을 다짐했다.

동아시아 텔레콤 노동조합 포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DDA에 대한 열띤 토론 펼쳐



제2회 동아시아텔레콤노동조합포럼이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만 카오슝에서 개최돼 WTO와 DDA의 통신서비스 개방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3개국 노동조합 위원장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집규칙과 비집규칙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보장과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을 촉구했다.

CTWU 참석위원장은 협정사에서 3개국 노조가 세계화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전략과 대응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자고 역설했다. 이에 지세식 위원장은 WTO와 FTA 등 신자유주의 물결속에 비집규칙 양산을 가속화하는 근로자대변법 제정 등 3개국에 비슷한 압상을 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용안정 등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권리보호에 앞장서자고 밝혔다.

이러 열띤 포럼에서 대만 CTWU는 시장의 개방이 공공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과도한 경쟁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작업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화텔레콤의 민영화·세단화 그리고 LLU개방은 국외의 남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대만의 기업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할 비용은 축소하고 있다며 감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NTT노동조합은 공정한 경쟁조건 확립이 대전제가 된다면 자유화 흐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자고 밝혔다.

KT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고통을 주었으며 그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강조하고 현재 한국은 고용불안,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감도의 감소, 부익부 빈익빈 압국한 실태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산업에 대한 개방이 기업 수익의 과다한 배분 유출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M&A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기성 자본의 횡포가 기업에 단기성과에 급급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공기로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3개국의 노동조합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노동자의 집체세력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파견노동자 문제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으며 산업민주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KT노동조합의 사인이사 진출 투쟁에 동의하며 적극지지한다고 밝혔다.

2004년 상반기 회계감사 총평

"목적과 예산항목에 맞게 적절한 집행이 이뤄져"

2004년 상반기 회계감사가 9월 9일 회계감사 총평을 끝으로 마감했다.

이날 김진국 회계감사 대표위원은 "상반기에는 조형비가 목적과 예산항목에 맞게 대체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밝혔고 "선민적으로 조형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잘 집행되었고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환수 6건(약 100만원) ▲행정지도 6건 (법민카드사용할성회, 원구기증 및 경비지출 미원회, 조형업무용차량 정비허리는 정비업체 발행영수증리 등)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형원 협제인 조형비 사용은 노동조합 발전에 신중하고 소중하게 사용함에 대해 중앙간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 투명인 조형세정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세식위원장은 "KT노동조합은 7인의 회계감사와 일주일의 수감기간 등 각종 회계관련 규정이 상급단체나 타노동조합과 비교해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규정과 집행현황을 고려했을 때 원칙과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상반기 회계감사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됐으며 회계감사위원회 ▲김진국위원장(노동부 복순진지부) ▲임태복부산지부(노동부 울산광역시지부) ▲이광국(노동부 울산광역시지부) ▲유영진(노동부 울산광역시지부) ▲구자원(노동부 울산광역시지부) ▲고영진(노동부 울산광역시지부) ▲조삼현(노동부 울산광역시지부) 등 7명이다.

제2회 위원장기 축구대회 무사히 마쳐

축구 · 전남지방본부 / 500m계주 · 충북지방본부 우승



전국 600여 조합간부들의 실신을 단련하고 단결의 장이 된 제2회 위원장기 축구대회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지리산수원관에서 개최됐다.

축구는 전남지방본부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서부지방본부가 2위, 감북지방본부와 충북지방본부가 공동3위에 올랐다. 500m계주는 충북지방본부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전북지방본부, 3위는 대구지방본부가 차지했다.

지세식위원장은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조합원들은 구조조정의 물바기 속에서 대안찾을 힘소문에 취약한 편"이라며 "조합간부들이 현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노총 총과업과 우리사주직선제 철폐에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10월 21일 입소식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참석 민주노총 총과업집행국에 대한 감언을 진행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차량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시켜 놓고 이제 양사는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친박한 정부가 노무현정부" 비판했다. 또한 "과건법은 중간취취를 허용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속화" 것이며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민주노총 총과업 찬반투표에 KT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노동조합간부들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반드시 실시시켜 직간접제 철폐와 파견법 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이뤄낼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UNI아시아태평양 통신분과회의



지세식위원장과 삼집간부 4명은 필리핀 세부에서 10월 10일부터 열린 UNI아시아태평양 통신분과회의에 참석하고 14일 입국했다.

이번 UNI아시아태평양 통신분과 회의는 전체적으로 전세계 공동적인 사안인 통신서비스의 민영화, 구조조정, 분사화 등과 아태지역의 통신발전, 기술변화에 대한 관심, 다국적 기업의 횡포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태지역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자국 노동조합 실태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며 회의가 진행됐다.

지세식위원장은 "경영참가를 위한 KT노동조합 활동 사례"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2003년 진행했던 노동조합의 사인이사 추진활동을 소개하고 사상최초로 집중투표제 청구까지 전개하는 등 주주총회 과정을 설명하고,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세계화인 대세이며 사인이사 추진활동으로 집취한 우리사주직선제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의 발전을 만들 것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또한, 전체 회의는 국제투기자본(몬스타 펀드) 및 일탈은 령 불법매각 반대와 대안중화텔레콤 민영화 반대 등 7개 사안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한편 마지막날인 13일에 있었던 UNI-APRO와 필리핀 회의에서 준비한 호청안찬전에 아로요 필리핀 대동령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므로서 이번회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중앙상집 추계체육행사 경기도 여주 농촌일손돕기



10월 15일 지세식위원장과 중앙상집, 이웅경 차장과 본사 노사협력팀, 복지팀, 인사팀, 총무팀, 홍보팀 등 3백여명은 추계체육행사를 대신하여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 그린투어 마을농가를 방문하여 벼베기, 고구마 캐기, 과실 거두기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업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이웃을 돕기 위해 노동조합이 주창하여 사회공헌활동으로 전환 시행하기로 노사간 협의했으며, 전국적으로 일제성 시행했다.

한편, 현업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율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주신 전국의 조합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www.itunion.or.kr

IT 연맹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전국IT노동자의 소통의 공간 IT연맹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IT노동자의 생활과 투쟁속에서 함께 숨쉬는 홈페이지가 되길 기원합니다. 조합원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